

‘실속형 중저가폰’ 올 여름 달군다

삼성 29만원대 프리미엄폰 LG·중 샤오미 등 대열 합류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샤오미, 화웨이까지 주요 제조사들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중저가폰을 잇달아 출시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달 갤럭시와이드3를 먼저 출시한 데 이어 이달 LG전자가 Q7을 내놓고 샤오미, 화웨이도 조만간 중저가폰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먼저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와이드3는 중저가폰 스테디셀러 ‘갤럭시와이드’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보급형 모델임에도 5.5인치 대화면, 1300만 화소 전·후면 카메라, 32GB 내장 메모리 등 프리미엄 성능을 탑재했다. 출고가는 29만7000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많은 유통망에서



삼성 갤럭시와이드2(왼쪽)·LG Q7

초기 공급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입고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재작년에 출시된 전작 갤럭시와이드1, 갤럭시와이드2는 누적 판매량 약 130만대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LG전자도 이달 준프리미엄폰 Q7으로 중저가 시장을 노린다.

Q7은 LG전자가 작년 런칭한 Q시리즈

의 신제품이다. 5.5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 18대 9 화면비 등 LG G7 씽큐의 디자인을 계승한 제품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된 AI 카메라 기능인 ‘Q렌즈’, DTS:X 3D 서라운드 사운드 등 기능을 제공한다. 4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 초반의 가격이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도 하반기 중저가폰 출시를 준비 중이다.

중국 샤오미는 휴대폰 유통업체 지모비 코리아를 통해 홍미노트5를 다음달 초 알뜰폰과 자급제 유통채널 등을 통해 발매할 예정이다.

홍미노트5는 5.99인치 화면에 퀵스냅드래곤 636 칩셋, 듀얼카메라를 탑재했다. 인물 모드, 뷰티 모드 등에 인공지능(AI)이 적용됐다.

화웨이 역시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인 P20 시리즈와 별개로 중저가폰을 국내 시장에 자급제 채널 등을 통해 출시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달 초 애플 세계개발자대회(WWDC 2018)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SE2도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모델은 애플이 2016년 출시한 아이폰 SE의 후속 모델로, 국내에는 이르면 7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우정청, 우체국 직원 정신건강 챙긴다

국립나주병원 등과 업무협약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최근 우정청 8층 대회의실에서 우체국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과로사 예방을 위해 국립나주병원,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우체국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자살·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3개 기관은 광주·전남우체국 직원의 정신건강 수준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국립나주병원 내 마음건강 안심클리닉을

운영하는 한편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순회교육, 힐링캠프, 정신건강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 겸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정신건강 증진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평소 예산과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NS 압박감 큰 여학생, 스마트폰 중독위험 2배 높다

■스마트폰 중독위험률



(평균나이 14.9세·이화여대 광혜선 교수팀)

친구 적고 음주 학생 더 위험
고위험군 80% 자정 후 취침
“학교·사회 수준 대책 필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더 많이 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광혜선 교수팀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1796명(남 820명, 여 976명, 평균나이 14.9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위험과 수면시간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호주내과학회(RACP)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소아과학·아동건강’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최근호에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 비율은 여학생이 23.9%로 남학생의 15.1%보다 훨씬 높았다.

이를 상대 비교위험도(OR)로 계산하면 여학생의 스

마트폰 중독위험은 남학생의 2배였다. 또 술을 마시는 학생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1.7배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도 스마트폰 중독위험을 1.5배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친한 친구가 적으면서, 학업성적이 낮고, 스스로 자각하는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것도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처한 학생들의 특징이었다.

주목되는 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와 메신저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된 점이다. SNS 사용률의 경우 여학생이 41.2%로 남학생의 26.5%를 크게 상회했다. 메신저 앱 사용률도 여학생(23.6%)이 남학생(12.8%)의 2배에 육박했다.

특히 스마트폰에 중독된 그룹에서는 SNS 사용이 더 많았지만, 중독되지 않은 그룹에서는 엔터테인먼트(오락) 앱 사용이 더 많아 대비됐다.

광혜선 교수는 “여학생이 SNS와 메시지에 즉각적으

로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커서 스마트폰 중독에 성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은 수면시간과도 상관성이 컸다. 고위험군 중에는 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비율이 40.4%에 달했지만, 저위험군은 이런 비율이 28.3%에 머물렀다. 또 고위험군의 80.6%, 저위험군의 67.8%가 각각 자정 이후 잠을 청했다. 고위험군 학생 중에는 아침 기상 시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응답이 많았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학생의 ‘낮시간 졸림증’ 위험도는 2.3배였다.

광 교수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생체시계로 알려진 ‘서캐디언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청소년기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정, 학교, 사회 수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과학관 ‘광주희망교실’ 카드 소지자에 할인 혜택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은 지난 5일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문화조성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희망교실 교육기부 희망가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광주희망교실 교육기부 희망가게’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문화·음식·스포츠·체험 활동 시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한 가게를 말한다. 불리한 여건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희

망교실 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기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광주과학관은 관내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희망교실 교육기부 희망가게’ 카드를 제시하면 결제 시에 상설전시관 입장권이 50% 할인되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르면 이달 말 LTE 요금 원가 공개된다

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사람이 원가 정보공개에 청구함에 따라,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

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